관심사 독해: 힘을 신뢰로 바꾸는 조건

2026년 11월 28일 게시글 대상분

오늘의 글들은 서로 다른 힘을 다룬다. 나트륨 배터리는 값싸고 충분히 좋은 기술이 시장을 바꾸는 힘이고, 인공지능은 사람의 판단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힘이다. 법원과 선거 관리는 정당성을 유지하는 힘, 전쟁 속 증언은 폭력의 기록을 남기는 힘이다. 문학은 무너진 자기 평가를 회복하는 더 작은 힘을 보여 준다. 공통 질문은 같다. 힘이 커질수록 무엇이 그 힘을 신뢰할 만하게 만드는가.

싸고 충분히 좋은 기술이 시장을 바꾼다

Noahpinion — The coming age of sodium-ion batteries

배터리 수요는 2024년에 이미 연간 1테라와트시(TWh)를 넘었다. 1TWh는 1조 와트시로, 10년 전 1년치 수요가 이제는 평균 한 주 수요보다 적다는 뜻이다. 특히 빠르게 커지는 시장은 전기차보다 고정형 저장장치다. 태양광을 저녁에 쓰고,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변동을 흡수하는 설비다. 시장조사 자료는 고정형 저장 수요를 2023년 97기가와트시(GWh), 2025년 247GWh, 2035년 972GWh로 본다.

이 시장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유망한 이유는 최고 성능이 아니라 조건의 일치다. 고정형 배터리는 움직이지 않으므로 무게가 덜 중요하고, 대신 수명 비용, 안전, 반복 충방전, 공급 안정이 중요하다. 나트륨 탄산염 원료는 톤당 약 100~500달러다. 리튬 탄산염은 2020년 이후 톤당 6,000~86,000달러 사이를 오갔다. 나트륨은 사실상 모든 대륙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희소 자원 가격 급등을 막는 "대체 기술"이 된다.

그러나 전망은 과열과 회의 사이에서 읽어야 한다. 나트륨 수요 전망은 2030년 135GWh와 830GWh로 여섯 배 이상 갈린다. 현재 나트륨 셀은 리튬인산철(LFP)보다 13~25% 비싸고, 최고 제품도 kg당 약 175와트시로 LFP의 205와트시보다 낮다. 추운 날씨, 화재 위험 감소, 완전 방전 상태 운송, 빠른 출력이라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2만 회 충방전 같은 수명 주장은 아직 제조사

자료다. 게다가 글쓴이는 배터리 투자·조달 회사 운영자이고 초안에 인공지능을 사용했다고 밝힌다. 방향은 설득력 있지만, 가격 역전 시점과 수명 수치는 현장 데이터가 더 쌓여야 확정된다.

인공지능의 힘은 순효과로 따져야 한다

Econbrowser — Accounting for AI Expenditures and Imports, Revised

Marginal Revolution — Disempowerment vs. net disempowerment

미국 3분기 GDP 수정치에서 인공지능 관련 투자는 위로 수정됐지만, 컴퓨터와 반도체 같은 관련 수입도 함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회계에서 수입은 국내 생산이 아니므로 빼야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투자가 GDP 성장에 기여한 크기와, 그 투자를 위해 들여온 수입이 GDP를 깎은 크기가 회계적으로는 비슷하다. 단기 경기 효과는 다를 수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발전 설비는 국내 고용을 만들지만, 수입 부품의 국내 승수는 작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율성을 빼앗는다는 논의도 같은 방식의 순효과 계산이 필요하다.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무력화한다는 글은 많지만, 동시에 사람이 얻는 능력까지 비교하는 문헌은 드물다. 어떤 일을 기계에 맡긴 횟수만 세면 무력화만 커 보인다. 반대로 희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게 된 효과도 있다. 인간의 통제·감시·협상 기술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가정까지 놓고 봐야 총량이 보인다.

이 낙관론에도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이 주는 능력은 임시적이고 회수 가능하지만, 한 번 놓친 통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비대칭은 중요한 반론이다. 다만 이 반론도 결론이 아니라 명시적 모형으로 검증할 문제다. 더구나 한 글은 인공지능에게 문헌 검토를 시킨 뒤 그 답을 평하는 형식이다. 자기 기술로 자기 기술의 이론을 심사한 셈이므로, 문헌 전체의 대표성은 제한된다. 좋은 질문은 “인공지능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강화와 약화가 어느 조건에서 얼마나 상쇄되는가”다.

신뢰는 다수결보다 검증 가능한 절차에서 온다

NachDenkSeiten — Demokratie braucht Vertrauen

NachDenkSeiten — Leserbriefe zu „BSW-Beschwerde abgelehnt: Verfassungsgericht beschädigt die Demokratie“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소수정당 BSW는 5% 진입 문턱까지 9,529표가 부족했다고 알려졌다. 약 5,000만 표 가운데 0.019%다. 이 차이가 정당 35석과 연정 과반을 가를 수 있으므로 재검표 요구가 나왔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검증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봤다. 비판자는 당파적으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정부와 만찬까지 했다며 이해충돌을 주장하고, 아예 헌법재판관을 제비뽑기로 뽑자고 제안한다.

같은 매체의 독자 편지 모음에는 반대 법리도 실렸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에 따르면 법원은 "개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통계적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의 제기 기한 안에 구체적 사실로 오류를 소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주장은 내부적으로 모순되거나, 어느 선거관리기구가 어떤 법적 의무를 어겼는지 보여 주지 못했고, 기한 후 보완도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검표가 틀렸다"와 "법원이 정치적으로 행동했다" 사이를 가볍게 오갈 수 없다.

핵심은 재판관의 성향보다 절차 설계다. 큰 선거에서는 개표 오류가 불가피하므로, 정당이 법원을 설득해야만 다시 세는 방식은 늦고 불신을 키운다. 의석에 영향을 주는 아주 근소한 차이에는 사전에 정한 자동 재검표 기준이 필요하다. 투표지 보관, 무작위 표본 감사, 참관인 기록, 오류율 공개도 함께 있어야 한다. 재판관 제비뽑기는 해답이 아니다. 법률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은 무작위성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신뢰는 "우리 편이 이겼다"는 결과가 아니라, 진 쪽도 확인할 수 있는 반복 가능한 절차에서 나온다.

증언은 판결이 아니지만 사라지면 안 된다

NachDenkSeiten — „Der Boden war mit Leichen bedeckt“ – Ein Augenzeuge berichtet vom Mehl-Massaker in Gaza

2024년 2월 가자의 구호품 배급 현장에서 벌어진 이른바 "밀가루 학살"을 목격한 한 남성은 2,000명 넘는 사람들이 밤새 식량을 기다렸다고 말한다. 새벽에 구호 차량이 도착했고, 그는 탱크가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사람들이 차량과 탱크 아래 깔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다. 가자 보건부는 최소 118명이 죽고 76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 인구의 95%, 약 210만 명이 급성 기아 상태라고 집계했다.

증언은 한쪽만 있지 않다. 병원 의사들은 많은 사상자에게 총상이 있었다고 말했고, 한 인권단체는 표본 조사에서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탄환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공중에 경고사격을 했고 접근하는 의심 대상의 다리를 겨냥했으며, 사망은 군중 압사와 구호 차량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군 측이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다. 어느 쪽 설명도 그대로 판결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도 기록은 중요하다. 이 남성의 아버지는 다리를 잃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고, 이후 동생과 사촌은 공습으로 숨졌다. 가족은 집이 파괴된 뒤 학교와 텐트를 옮겨 다녔고, 아버지는 치료를 위해 이집트로 이송됐다. 의료기록, 탄환, 원본 영상, 병원 수용 기록, 목격자 진술을 따로 보존해야 나중에 책임을 가릴 수 있다. 증언은 그 자체로 최종 진실이 아니지만, 증언을 정치적 편의로 지우면 어떤 조사도 시작할 수 없다.

문학은 해답이 아니라 동행자다

books76 — 書評 / 年末になると後悔ばかり思い出すあなたへ。自己肯定感を取り戻す文学ガイド『昨日の重り、明日の翼』【ビブリオセラピー】

연말에 후회가 커지는 이유를 이 글은 반추 사고로 설명한다. 반추 사고는 같은 실패와 후회를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되새기는 심리 습관이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이 반추의 스위치가 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좋았던 한 해" 게시물이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긴다.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 번의 실패가 현재의 자기 평가 전체를 덮을 수 있다.

글은 심리 용어를 생활 문제로 옮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은 자기효능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는 마음은 예기불안이다. 종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느꼈는지 짧게 쓰는 저널링은 생각을 외부에 놓아 반복을 끊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비블리오테라피, 즉 독서치료는 인물의 고통에 자신을 겹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감각을 얻는 접근이다.

다만 이 글은 중립적 서평이 아니다. 글쓴이가 직접 쓴 책과 유료 아트테라피 강좌를 소개하고 구매 링크를 단다. 따라서 치료 효과를 광고 문구로 읽으면 안 된다. 문학은 상처를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상처를 들여다보는 형식을 주는 보조 수단이다. 글이 말하듯 강한 고통은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 그 경계를 분명히 하면,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상처를 들고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독서의 약속은 오히려 정직해진다.

수집과 근거

승인된 피드 22곳을 확인했고 모두 정상 수집했다. 수집된 새 글 16편을 모두 끝까지 읽은 뒤 7편을 분석하고 9편은 생략했다. 분석한 7편은 원문 페이지 또는 승인된 피드 전문 기준으로 본문 수신을 확인했다.